

위험물 사고 예방 수칙



1. 선임된 취급자만 위험물 취급

- 위험물 취급은 반드시 선임된 취급자(관리자)의 관리하에 실시



2. 위험물이 인접한 곳에서 용접이나 용단작업은 절대 금지

- 불티의 비산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갑작스러운 화재 발생 가능



3. 위험물 저장소에서는 화기 및 인화물 취급하지 않기

-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은 불이 붙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음



4. 위험물 집합 장소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환기

- 가스 체류 시 화재 위험 및 작업자 중독 사고 발생 가능



5. 위험물과 일반 물품을 혼재하여 저장 및 보관하지 않기

- 법령에 의한 혼재 명시 및 가능한 물품끼리 보관

스스로 진단하기

Check List



- ☒ 위험물이 인접한 곳에서 화기를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 ☒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곳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나요?



- ☒ 위험물 취급 장소에 임의의 작업자가 출입하지는 않나요?



- ☒ 인화성 유류가 누유, 누수되고 있지는 않나요?



- ☒ 위험물 저장장소가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인가요?



- ☒ 위험물 인접 장소에서 용접이나 용단 작업을 하지는 않나요?



- ☒ 위험물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나요?



- ☒ 위험물 인접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는 않나요?

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위험물 화재



위험물 알아보기


위험물이란?(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구분	명칭	대표 성질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브롬산 염류 등)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 등)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나트륨 등)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석유류 등)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질산에스테르 등)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과산화 수소 등)	

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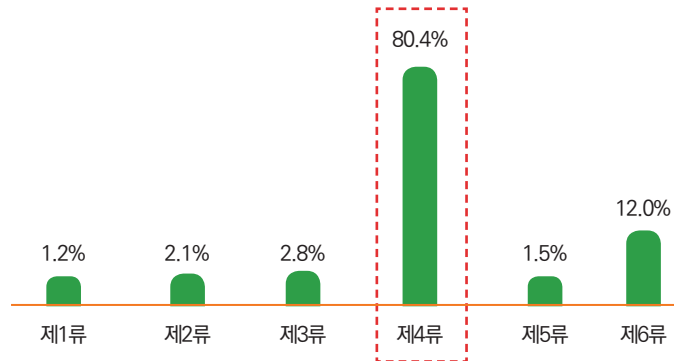
화성시 의약품 원료 제조공장 폭발(화재)사고

일시	'22년 9월 30일 14시경	
피해현황	사망 1, 중상 4, 경상 11	
사건개요	제조공정 반응기에서 아세톤 및 혼합물이 누출되어 폭발	

현황 및 주요 원인

전국 위험물 사고 통계(최근 5년간, '17~'21년)

“제4류 위험물(석유류)”에서 압도적 발생



- 제4류 위험물(석유류)에서 위험물 사고 80.4% 발생
- 사고 유형은 화재(44.2%) > 누출(28.4%) > 폭발(25.4%) 순

위험물 화재 위험성



- 연소될 때 발열량(나무 발열량에 비해 2배 이상)이 높아 화재 확대 위험성 높음



- 유독가스(탄화수소 등)를 흡입하면 화학성 폐렴 등과 같은 심각한 증상 발생



-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고 낮은 인화점에서 폭발 가능

국민행동요령



1. 신속하게 대피하기

-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수건 등을 사용해서 흡입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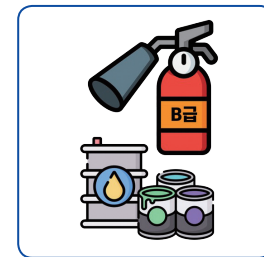
2. 119 신고 및 주변에 알리기

- 신고 시 위험물의 종류, 공장 용도 알리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열 흡입방지를 위해 두 손으로 얼굴 감싸기

- 이동을 멈추고 바닥에 몸을 좌·우로 뒹굴어 불을 끄기



4. 유류 화재 초기 소화시 B급 소화기(분말소화기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 ※ 석유류나 페인트 화재는 물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금지



5. 폭발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하여 안전거리 확보